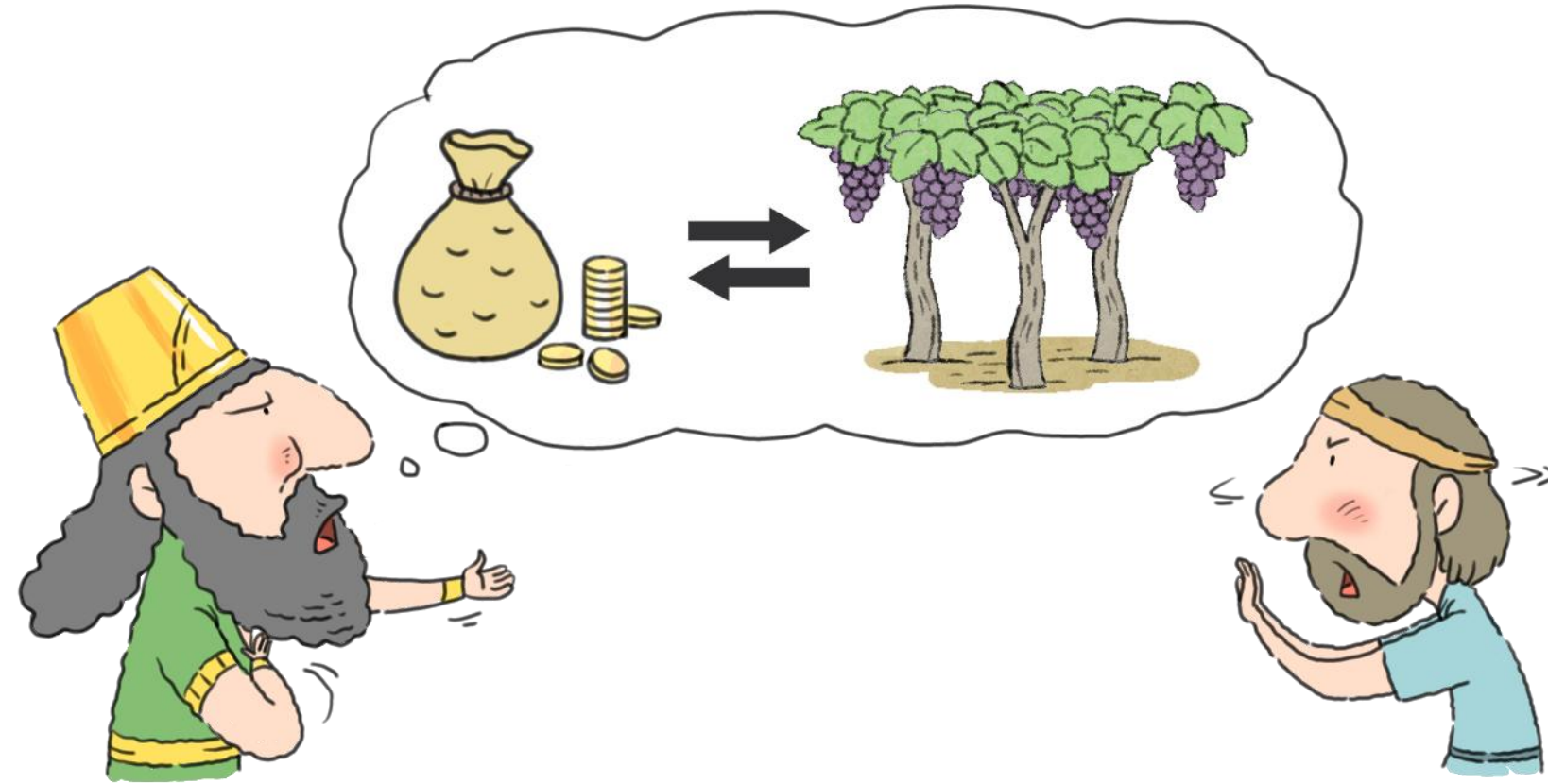




아합이 포도밭을 탐냈어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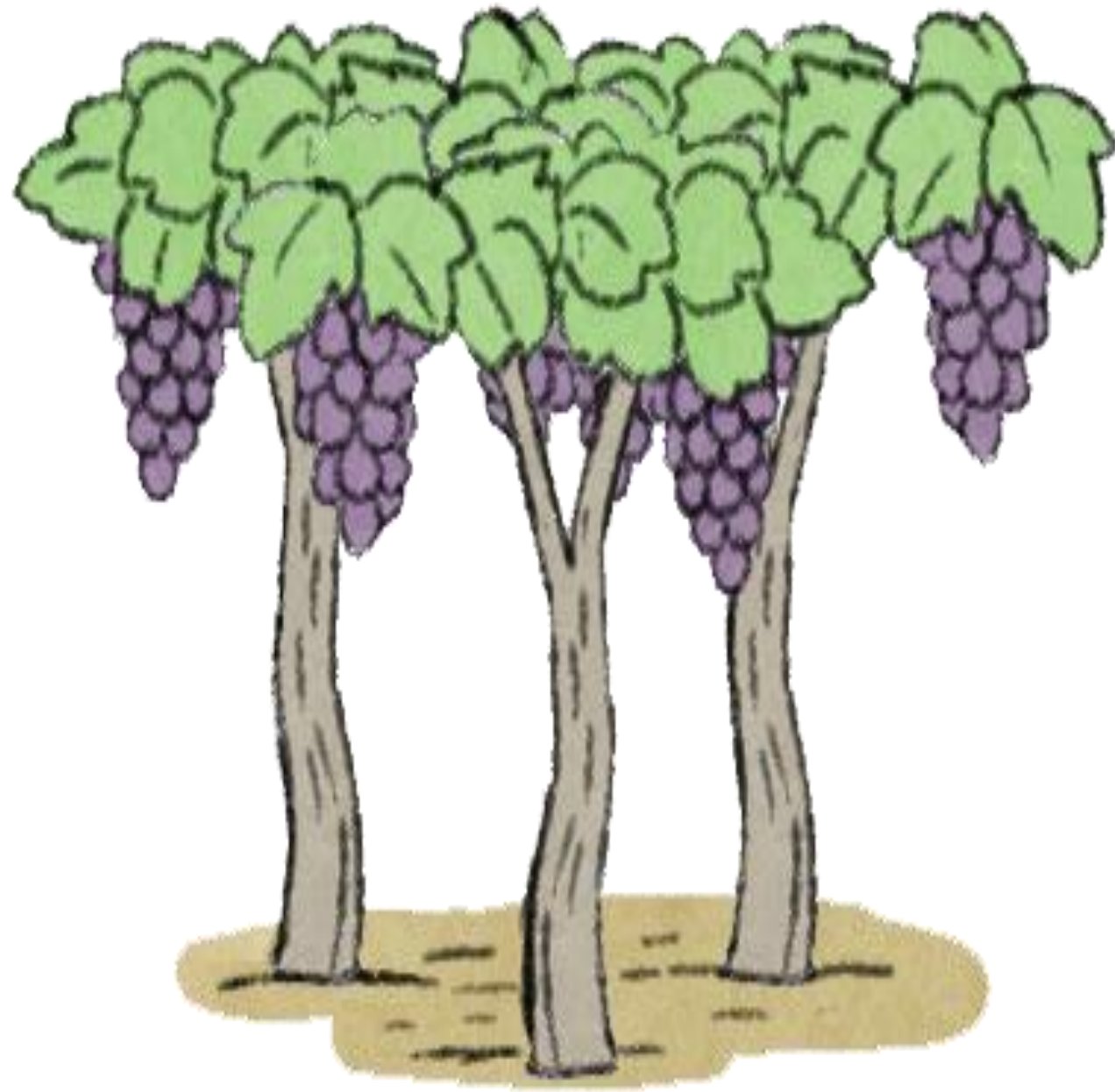
열왕기상 21장 3-7절

나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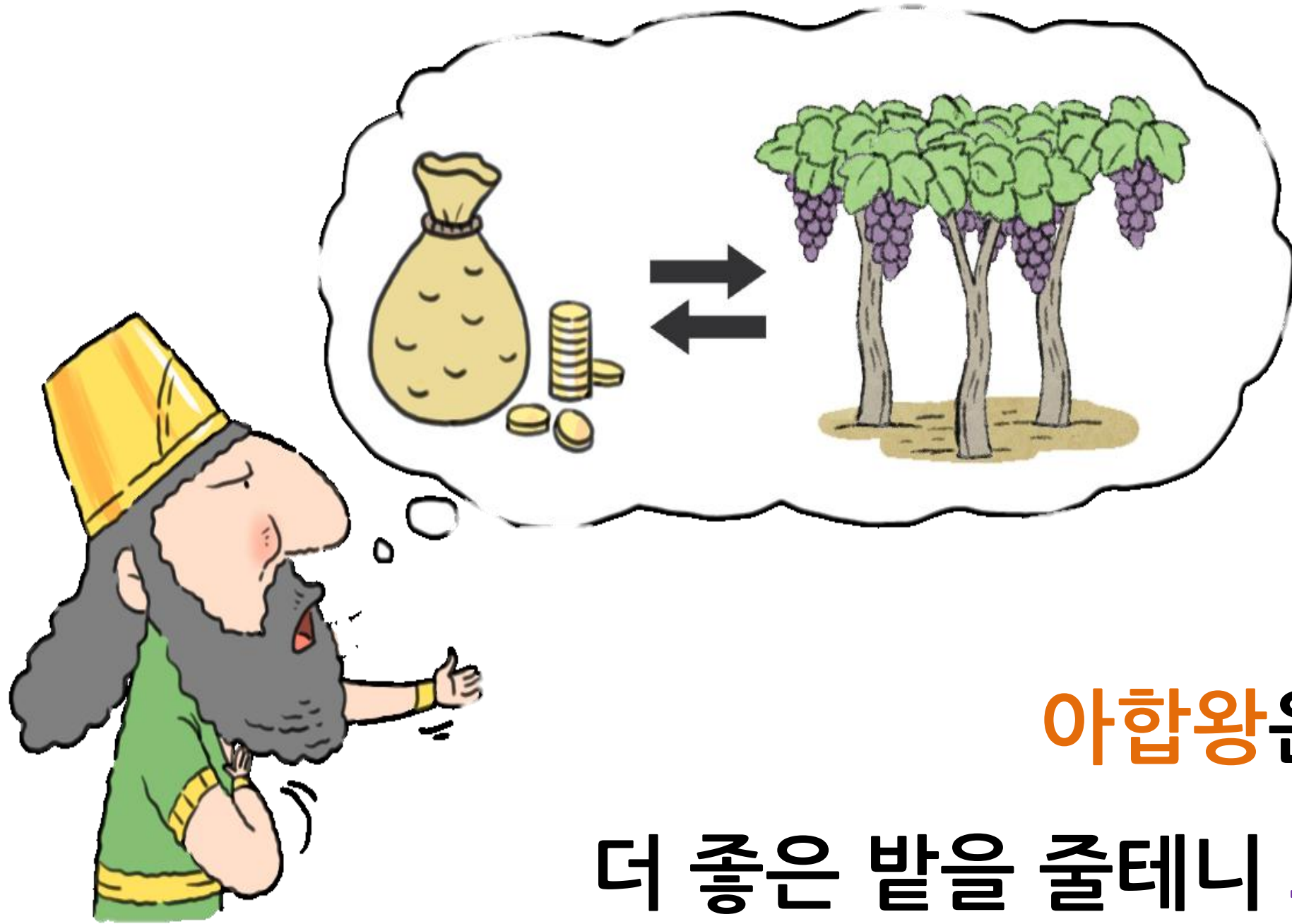
"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,
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."

욕심을 부린 적이 있나요?





나쁜 일을 참 많지도 한 **아합왕**은
어느 날 왕궁 밖을 보다가 **나봇**이라는
사람이 가진 **포도밭**을 보게 되었어요.



아합왕은 나봇에게
더 좋은 밭을 줄테니 포도밭을 팔라고 했어요.

하나님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마음대로
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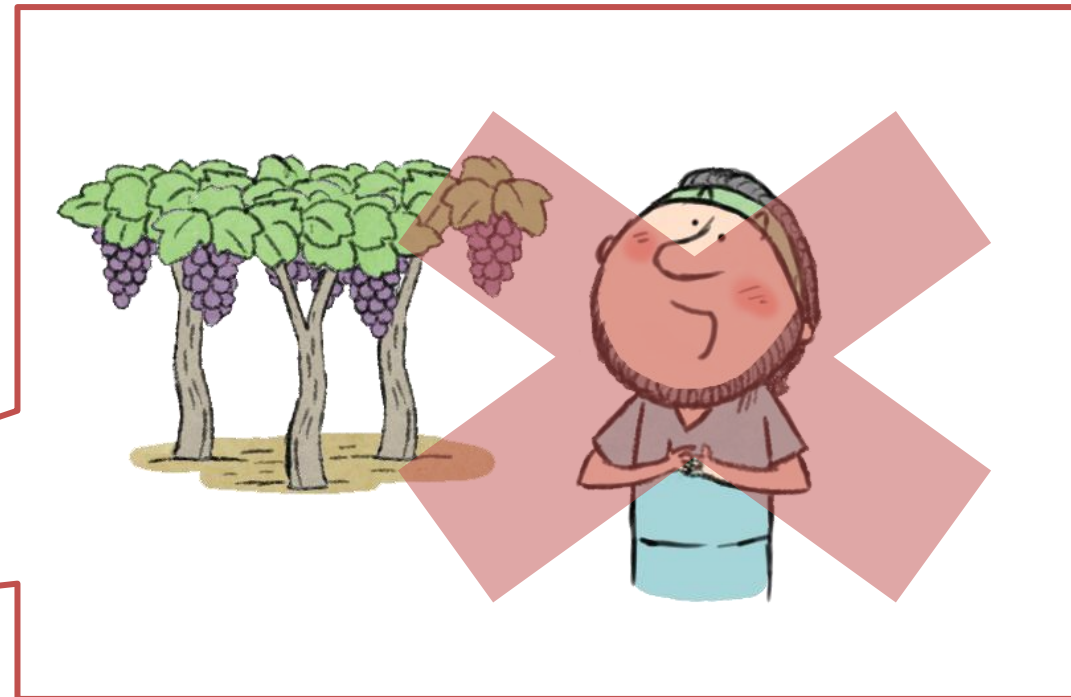


여호와께서
금하신 일입니다.

아합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
화가 나서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.



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이 나뭇 때문에
속상해 한 일을 듣고서 나뭇을 죽이고
포도밭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어요.



더 가진다고,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
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해져요.



내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,
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?

